

# 돼지 호텔

- 홍 보 부 -

유럽(EU)농업장관들은 지난 5월 21일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소, 양, 돼지들이 24시간 동안 쉴 수 있는 휴게소, 이른바 동물호텔을 EU내 고속도로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EU가 마련한 동물보호규정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내년말까지 동물호텔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동시간이 한번에 8시간 이상인 동물의 경우 반드시 동물 호텔 사용을 의무화 했으며 동물학대 금지와 함께 동물에 대한 전기봉 사용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농업관계 장관들이 돼지 호텔을 짓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돼지 수급을 위해 대륙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수송에서 돼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로 차원높은 동물 애호사상의 구현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희랍 시대에도 돼지 호텔은 있었다.

당신 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희생물이 돼지였다. 희생 돼지를 관장하는 제관은 신에 버금가는 사회적 지위를 누렸으며 여느 사람의 집보다 한결 좋은 <희생의 여관>에서 돼지와 더불어 기거했다. 곧 희생 돼지는 호텔에서 살았다는 것이 된다. 한데 한국 돼지의 집은 형편 없었다.

「魏略(위략)」이라는 문헌에 북부여(北扶餘)의 시조는 돼지우리에 버려진 한 시녀의 사생아다. 고구려 시조인 朱蒙(주몽·동명성왕)도 돼지우리 안에 버려진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다.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가 천제의 아들 해모수(解慕漱)의 사생아를 배어 알을 낳자 이를 상서롭지 못하다하여 돼지우리에 버렸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것이 주몽이다. 이처럼 돼지우리는 인신의 쓰레기장이었다.

한나라의 고조 유방(劉邦)은 만년에는 여후(呂后)를 거들며 보지 않고 젊고 아름다운 척부인(戚夫人)에 빠져 있었다. 유방이 죽자 질투에 이글거리던 여후의 질투행동이 표출된 것이다.

척부인의 수족을 차례로 자르고 두눈알을 빼버렸다. 귀와 코를 자르고 돼지우리에 가두게 했다. 여태후는 어느날 즉위한 새황제에게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짐승을 구경시켜 드리겠다』며 돼지우리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수족과 이목구비가 없는 괴물이 인분에 범벅이 된 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인시(人豕)라는 짐승이다.』라고 했다. 사상 가장 가공할 린치(熨刑)의 현장도 돼지우리다.

한자에서 뒷간을 뜻하는 혼은 口+豕 곧 돼지를 가두어 놓은 우리라는 뜻모임 글자다. 근대까지 우리나라 산촌이나 섬들에서 측간에다 돼지를 길렀듯이 동양문화권에서는 고대로부터 돼지우리 측간은 공통 공간이었다. 또 혼에 괴롭힌다는 뜻도 있음을 미루어 고대에는 감옥 대신 감금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일을 빗대어 돼지막(幕)에다 비단이불 깐다고 했다. 다만 우리 나라 해몽에서 돼지와 비단이불 속에 함께 자면 재물을 몰고 오는 업돼지가 들었다 하여 길몽으로 쳤다. 머나먼 유럽 이야기 이긴 하나 그 돼지막에 금침을 까는 돼지 호텔이 생겼다니 무상하다. 더불어 살고 있는 동물 인식에 혁명을 가져다준 계기로 새겼으면 하는 돼지 호텔이다.

<조선일보에서 인용>